



랑데부 문 세레니티

화려한 장식을 배경으로 영롱한 문페이스가 자태를 드러냅니다. 신비로운 별 장식이 중요한 약속 시간을 알려주며, 푸른 물결과 눈부신 다이아몬드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온화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의 시계에는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장착되었습니다. 핑크 골드 소재의 세련된 버전으로 출시된 랑데부 문 세레니티는 매뉴팩처 워치메이커와 주얼리 장인들의 뛰어난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푸른 바닷속에서 떠오르는 청초한 문페이스

전체가 블루 컬러로 장식된 랑데부 문 세레니티 시계는 새틴 처리한 천체도에 마더오브펄 소재의 문페이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이얼 내부의 매혹적인 블루 컬러를 배경으로, 골드 컬러의 섬세한 반구형 디테일이 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며, 별빛 가득한 밤하늘의 별자리들을 재현해냅니다. 랑데부 컬렉션의 상징적인 플라워 모티프 숫자는 선레이 패턴 다이얼의 상부에서부터 크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자취를 감춥니다. 원호 형태를 그리며 간결하게 장식된 숫자들은 끊임없이 다채로운 풍경을 그려내는 환상적인 밤하늘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정밀하면서도 화려한 디자인

베젤 주위의 크라운에는 62 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었습니다. 각각의 진귀한 스톤은 다른 쟈스톤과 함께 정확히 세팅되기 위해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섬세한 나비처럼 장식된 신비로운 별 장식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다가오는 약속 시간을 알려줍니다. 간결하면서도 재치 있는 실루엣의 발랄한 별 장식은 컬렉션명이자 시계명이기도 한 랑데부가 지닌 '만남'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줍니다. 힘차게 박동하는 랑데부 문 세레니티 시계에는 오토매틱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인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935 가 장착되어 뛰어난 정확성을 선사합니다. 265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이 무브먼트는 시계 뒷면의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 모두 핑크 골드로



제작된 랑데부 문 세레니티 모델은 눈부신 별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순수한 라인에서부터 세련된 형태, 고급 소재에 이르기까지, 그랑 메종의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노하우를 정교하게 결합한 현대적인 스타일이 돋보이는 모델입니다.

랑데부 문 세레니티

크기: 36mm

두께: 10.5mm

칼리버: 935 – 오토매틱

케이스: 핑크 골드

방수 기능: 3 bar

기능: 시-분, 문페이즈, 랑데부 인디케이터

파워 리저브: 38 시간

다이얼: 블루 새틴 처리

다이아몬드: 124 개 - 1.31 캐럿

케이스백: 오픈

레퍼런스: Q3522480

예거 르쿨트르

예거 르쿨트르는 설립 이래 뛰어난 노하우와 예술적 감각, 세련된 스타일과 섬세한 디자인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예술 작품들을 선보여왔습니다. 1833년 창립자 앙트완 르쿨트르로부터 시작된 발명 정신을 충실히 계승하는 매뉴팩처의 장인들은 파인 워치메이킹의 전통을 잇는 최첨단 컬렉션들을 제작했습니다. 리베르소와 마스터, 예거 르쿨트르 폴라리스, 랑데부, 애틀모스와 같이 수세기를 걸쳐 그랑 메종이 구축해온 풍부한 워치메이킹 유산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브랜드의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줍니다.